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혁신금융 • 포용금융 • 신뢰금융
	보도	2019. 9. 17.(화) 14:30	배포	2019.9.17.(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02-2100-2860)	담 당 자	김태훈 사무관(02-2100-2861) 김종식 사무관(02-2100-2864) 김명지 사무관(02-2100-2865)
--------------	-----------------------------------	--------------	---

제 목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첫 기업 현장행보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 개최

■ 신임 금융위원장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根幹)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

(1) 현장간담회 개요

- ☐ '19. 9. 17일(火)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 기업 현장행보로 소재·부품·산업 현장을 방문
- 소·부·장 기업 및 협회·연구원으로부터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재임기간 중 중점 추진할 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방향을 제시

< 소재·부품·장비 현장 방문 개요 >

■ 일사·장소 : '19.9.17(火) 14:30~16:00 / 안성시 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회사※

※ 방문회사 개요 : (주)아이원스

-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특수부품의 기술 확보에 성공
- ◆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인 미국 Applied Materials社에 납품 중이며, 새로운 기술도 공동개발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한국성장금융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5개사 및 관련 협회, 금융연구원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소·부·장 산업 금융지원 방향

- 신임 금융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기초 체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
 - 우리 경제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소·부·장 산업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 한편으로는 핵심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지적
- 우리 경제와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의 재도약이 절실
- 이에 금융위는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① 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
 - ② 소·부·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가칭 : 소·부·장 펀드)을 추진하는 한편,
 - ③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9.10일 출범)를 통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한 M&A·투자 등을 적극 지원

※ [참고]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19.8.3일)

- ❶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연장, 시중은행 대출 자율연장
- ❷ (신규유동성) 기존 프로그램 활용(2.9조원), 신규 프로그램 신설(3.8조원)
- ❸ (경쟁력제고 지원) 대출·보증(17.5조원), M&A 지원(지원여력 2.5조원)

◆ 9.6일 기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은 日 수출규제 유관기업에 대해 5,36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실시

□ 이와 함께,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확고한 금융 안정**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

- 우리 금융 부문은 ①對日 의존도가 크지 않고, ②대체 가능성이 높고, ③외환보유액도 충분하여 수출규제 영향은 제한적이나,

① 전체 外人 자금 중 日 비중(19.6말) :

[주식] **2.3%**(13조원), [채권] **1.3%**(1.6조원), [대출 등] **6.5%**(약 13.6조원)

② 국내은행은 일본은행 대비 **높은 신용등급**(산은 AA / 기은 AA- vs. DBJ A / JBIC A+)

→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매우 원활

③ 외환보유액(19.5월말) : 4,020억달러*(세계 9위, '08년 금융위기 대비 +1,623억달러)

- 금융당국은 긴장감을 갖고 **향후 진행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

[3] 간담회 주요발언 : 정책적 제언

□ 간담회에 참석한 “**기술력 확보**” 소재·부품·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 경험담과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

- 참석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성공 요인*이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

- ① (A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회사) “27년에 걸친 기술개발 끝에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특수부품의 기술확보에 성공하였고, 이제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유치 및 공동개발 중”
- ② (B 반도체 장비회사) “일본산 반도체 검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창업 초기 일본 반도체 엔지니어를 직접 찾아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고, 이후에도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현재는 주요 반도체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
- ③ (C 자동차 부품회사) “일본산 자동차 시트 스위치를 대체하여 국내 자동차 시트 전원공급 장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테슬라, GM 등 해외 우수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 중”

- 참석기업들은 기술개발·사업화 단계에서의 자금난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 ①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② “기업·산업간 매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간 제휴·컨소시엄 등 협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
- ③ “상용화 되지 못한 기술은 은행에서 담보로 평가되기 어려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움 → 기술력 기반의 대출 관행이 필요”
- ④ “신산업 분야 진출,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목적의 M&A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필요”

□ 관련 협회와 연구원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제시

- ① 소재·부품·장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금융 공급
- ②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
- ③ 기술개발 및 M&A 등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수출규제 관련 기업은 아직까지는 日 수출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日 수출 규제 장기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 “아직까지 3개월분 이상의 재고 확보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단기간내 대체재 확보가 쉽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출 규제 장기화시 부담이 될 전망 → 수입선 다변화, 대체생산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금융프로그램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라고 언급
- 이를 통해 금융이 소·부·장 산업 도약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본인을 “소·부·장 위원장”으로 불러달라고 언급
- 특히, 기업인들에게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술개발시까지 자금걱정은 없도록 끝까지 챙길 것을 약속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졌습니다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참석기업들의 주요 기술개발 사례

① A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 ◇ '93년 10명 내외 직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7년간 반도체 장비 부품의 정밀가공, 세정, 코팅 등의 기술개발에 노력
 - ▶ 삼성전자와 장기간 거래를 하며 깨진 부품을 수리·세정·코팅하며 점차 기술력을 축적
 - ▶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의 특수부품 기술확보에 성공
- ◇ 현재 특허권 26개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에 역으로 수출* 중

* 반도체장비 세계 1위의 美 Applied Materials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 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새로운 부품을 공동개발하여 선도적 위치 점유

② B 반도체 장비 기업

- ◇ 미국계 반도체 회사 근무시 일본산 반도체 검사장비가 원가 대비 지나치게 고가인 현실에 기술개발을 결심
 - ▶ 창업 초기 일본 반도체 엔지니어를 직접 찾아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 ▶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필수적인 초정밀 금형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중소 금형업체와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 '98년 기술개발에 성공
- ◇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게 반도체 완성 전 직접 품질검사 대행까지 제공하는 등 사업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 중

③ C 자동차 부품 기업

- ◇ '00년대 초반 일본산 자동차 시트 스위치가 국내 완성차 부품과 호환성이 떨어져 조립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스위치 개발을 시도하여 성공
 - ▶ 국내 자동차 시트 전원공급장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테슬라, GM 등 해외 완성차업체에도 납품 중
- ◇ 최근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용 히팅 부품을 개발하는 등 신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

참고2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금융지원 방안(8.3일 발표)

◇ 당장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① 만기연장 및 ② 신규 유동성 공급,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R&D 지원 등 ③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① 만기연장 :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현재 17개 시중은행 전부 시행)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세부기준

-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③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② 신규 유동성 공급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최대 6조원 규모

분류	프로그램명	지원기관(지원액)	지원규모	
기존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산은	2.5조원	2.9조원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산은(0.2)·기은(0.1)·중진공(0.1)	0.4조원	
신설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보(1.0)·기보(0.6)	1.6조원	3.8조원
	소재부품 연구개발 운전자금	기은	0.2조원	
	수입 다변화 지원	수은(1.0)·무보(1.0)	2.0조원	

※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19.下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 집행

③ 경쟁력 제고 : ①·②대상 + 소재·부품 기업 ☞ 20.5조원 이상

분류		프로그램명	지원기관(지원액)	지원규모	
기존	시설자금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산은(7.0)·기은(3.0)	10조원	16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산은	1.0조원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산은	2.5조원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	수은	2.5조원	
신규	보증지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원	신보	1.0조원	1.5조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기보	0.5조원	
	M&A	M&A 관련 지원	기은(1.0)·수은(1.5)	2.5조원	2.5조원
	기타	상생협력	대기업 매칭	0.5조원	0.5조원